



키움증권 단기채 펀드 가입고객 대상 내달까지 '단단단 이벤트'

키움증권은 단기채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0월 26일까지 '단단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단단 이벤트'는 해당 펀드 가입 고객에게 100만원 이상 매수 시 사용할 수 펀드쿠폰(2만원)과 1000만원 이상 가입 시 최대 5만원까지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키움증권 자산관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키움증권 자산관리 앱)에서 펀드 쿠폰을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키움증권은 현재 2019년 말까지 '펀드 최저가격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종합 매거진 'THE 100' 44호 발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금융과 교양 정보를 아우르는 100세시대 종합정보 매거진 'THE 100' 44호(9월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한국 문학의 거장 조정래 작가의 가족문학관이 개관한 전남 고흥이 문학 여행지로 소개됐다. 고흥의 다양한 여행지 정보와 함께 여수갯벌노을마을의 팍스태이 체험 프로그램과 갯벌노을축제도 소개됐다. 그 외 미쉐린 가이드 서울이 추천하는 해외 음식 맛집, 힘의 원천을 제공하는 코어운동 따라 하기, 간송미술관 그림 속 옛 사람들의 가을 풍경 등이 실려 있다. 이번 호의 금융 정보는 '종전선언 성사 후 남북경협 투자전략', '스마트한 소비로 시작하는 자산관리'와 '점진적인 성공을 위한 5가지 팁'이다. /김문호 기자

유진투자증권 美 금리인상 따른 위기 등 '하반기 투자전략' 설명회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40분부터 지점 객장에서 '하반기 투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허재환 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긴축과 신중국 위기 등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고, 이와 관련한 하반기 투자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광주복지점으로 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

트럼프發 박스권 지속... 믿을 건 '배당주'

최소한 수익 보장 가능 '관심집중'
美 무역분쟁 이슈로 증시 지지부진
수익률 기반 종목선별 접근 유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의 불씨를 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을 조언한다.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1%인 만큼 배당주 투자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있어서다. 10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9월3일~7일) 코스피지수는 1.78% 하락했다. 미국이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까지 무역분쟁의 불씨를 만들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분쟁 이슈를 끌고 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에 대비해 정책 일관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기간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 역시 주요 이벤트에 일회일비(-喜-悲)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신중국발 통화 변동성과 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시장 내 경계심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JP모건 이머징마켓 통화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하나금융투자가 추천하는 배당주>

기업명	2018년			예상 현금배당수익률 (%, 12M Fwd)
	고정대비 주가수익률 (9월7일 증가 기준)	3분기 순이익증가율 (%, QoQ)	순이익증가율 (%, YoY)	
삼성전자	-15.3	17.8	17.4	3.9
SK하이닉스	-20.4	8.1	55.2	2.3
POSCO	-22.0	53.3	17.4	2.7
기아차	-2.8	31.6	77.4	2.9
기업은행	-14.8	9.8	12.9	5.1
코웨이	-5.6	4.4	13.0	3.8
LG유플러스	-4.0	11.7	0.9	3.0
한은시스템	-10.8	15.0	11.3	2.7
NH투자증권	-22.3	-14.4	24.1	4.8
KCC	-18.4	흑전	285.0	2.6
에스원	-20.3	16.1	4.1	3.1
GS리테일	-15.1	18.9	25.6	2.1
BNK금융지주	-25.7	7.5	42.5	4.2
아이엔지생명	-43.8	-13.4	2.7	8.4
SK머티리얼즈	-2.6	29.5	13.7	2.3
SKC	-4.1	14.3	47.0	2.3
DGB금융지주	-23.2	4.3	17.8	4.3
롯데하이마트	-13.8	26.1	10.7	2.6
하이트진로	-32.9	166.7	263.6	4.8
한국토지신탁	-14.4	12.6	0.3	3.9
한국자산신탁	-30.0	11.7	2.6	6.1

* 순이익증가율은 추정치. /자료=Quantiwise, 하나금융투자

7월 미국의 무역적자 폭은 마이너스(-) 3380억달러(1~7월 누적)로 1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분쟁 장기전에 돌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배당주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회를 노릴 것을 조언한다. 광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4분기에는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의 수익률 호조가 뚜렷하다"며 "배당주 매수 타이밍은 3분기 말, 4분기 초"라고 말했다. 4

분기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익률도 호조를 보였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코스피 예상 배당수익률이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투자전략팀장은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국내 수출물량 감소와 기업 매출 부진 그리고 마진감소로 인한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 기업 수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수의 기대수익률을 높게 책정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고 설명했다.

고난이도 펀드 성공 잇따라... 3년새 2배 성장

IPO기자간담회 나우아이비캐피탈 구조혁신 분야 특화 포트폴리오 갖춰

종합투자회사 나우아이비캐피탈이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11일 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17, 18일 청약을 실시한 후 10월 초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나우아이비캐피탈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출발해 신기술사업금융업, 사모펀드(PEF) 운용, 인수합병(M&A) 자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종합투자회사다. 초기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일반적인 창업투자회사들과 다르게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성숙기에 진입한 기업 혹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승원 나우아이비캐피탈 대표이사 회사 설명을 하고 있다. /나우아이비캐피탈

최태기에 진입한 기업들의 구조혁신과 2차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2차 성장, 농식품(성숙산업), 구조혁신 분야에 특화된 펀드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차별화된 역량을 기반으로 나이가 높은 정책목적

성 펀드를 운용하며 정부 출자자(LP) 출자의 증가를 이끌어 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결성한 나우 일본 M&A 펀드는 국내 기업이 일본 기업을 M&A 하거나 일본기업과의 기술제휴를 돕기 위한 펀드로 해외 M&A 발굴부터 실사 등 M&A 전 과정을 지원하며 투자를 진행했다. 2011년 결성한 농식품 투자 펀드는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펀드로 1호의 성공적인 운용 성과를 통해 현재 4호까지 시리즈 펀드로 성장했다. 정부 LP뿐만 아니라 민간 LP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농식품 중소기업에게 푸드테크, 헬스케어, 농식품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의 혁신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지원해 출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고, 성공적인 운용 레퍼런스로 관련 펀드를 지속적으로 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고난이도 펀드들의 성공과 출자 기업과 피투자기업의 시너지 창출을 기반으로 나우아이비캐피탈은 2014년 2260억원이던 운용자산 규모가 2017년 4380억원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이번 공모를 통해 수익 성장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나우아이비캐피탈은 일반 창업투자사와 달리 운용사(GP) 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운용하는 펀드부터 나오는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이외에 지분법이익이 영업수익(매출액)의 주요 항목이다. 이번 공모에서 유입되는 자금(238억~275억원)도 자기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지분법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9500원~1만1000원으로 총 250만주를 공모한다. 내달 초 상장예정인 나우아이비캐피탈의 대표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손영지 기자

드레스룸·펜트리룸... 갖출건 다 갖춘 '초소형 오피스텔'

현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 등 초소형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원룸형 평면에서 벗어나 테라스형과 복층형(다락방), 침실분리형 등 초소형(전용35㎡이하)에도 드레스룸과 펜트리룸을 갖춘 '콤팩트(Compact)'형 개발이 등장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HDC현

대산업개발 '평택 고덕아이파크'는 초소형면적(전용 35㎡이하)에 다락방(복층)과 테라스형, 침실분리형 등 총 12개의 평면타입을 선보였다. 35㎡에는 침실분리형(2룸) 설계로 펜트리룸과 수납장을 마련, 인기를 끌었다. 박찬주 와이넷플래닝 대표는 "1~2인가구 증가로 초소형 오피스텔에도 소비자 요구에 맞는 평면이 나오고 있다"며 "침

실분리형, 테라스, 다락방(복층) 등 특화 평면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신건설은 '더캐렌시아 300'을 공급하면서 29㎡(투룸)를 제외한 나머지 290실을 1.5룸으로 설계했다. 1.5룸은 원룸에 중문을 설치해 독립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한 형태다. 일부 실에는 테라스, 우물천정을 적용했다. 이어 정우개발(주)이 공급한 서울 광진구

희양동 '건대하이뷰'는 기존 대비 1.7m 높이는 4m 층고의 복층형 원룸을 내놓았다. 유럽E&C가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동탄역 유럽노르웨이숲' 오피스텔은 원룸형부터 거실분리형, 테라스형 등 5가지 초소형타입이 마련됐다. 22~25㎡에는 방 중간에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3㎡D(48실)는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형태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주방공간 및 드레스룸이 마련됐다. /이규성 기자 peace@